



대신대학 논문집 제12집(1992)
신학편 pp. 395-419

루터, 칼빈, 그리고 청교도의 소명사상

Luther, Calvin, and Puritan's Vocation Thought

이 은 선 *

The Reformation which was broken out in the sixteen century is not a simple religious reform movement but a enormous spiritual revuolution which influenced politics, ecomics, society, and culture. Therefore Reformation is esteemed a significant moment which transformed the Western society into modern society and formed a new cluture. In this essay I will investigate the 'calling' view of Reformers which is reckoned as a great factor to make a modern capitalistic society.

Luther undermined the dual concept of the holy and the secular which was generally accepted in Medieval Christendom. He claimed that all men were priests before God because all men werj justified only bf faith. Then all works which priest, farmer, and housekeeper do have equal value to God. All men are called to each's job by God. They must do their best to do their jobs. But Luther didn't permit the liberty to choose job and underestimated the trading and forbade usury.

Calvin understood the calling just as Luther did. He connected the calling with pre-destination. He very positively estimated work as the means to serve God. But he didn't see wealth as the recompense of one's work but the sign of God's blessing. He stressed that the wealth was used for the common goodness and the relief of the poor. Unlike Luther he positively estimated the value of trading and permitted for the lender to receive interest if the borrower got the profit through the loan.

* 목회학과 전임강사

The puritans accepted the right to choose job according to one's ability and inclination. At this point their view of calling was advanced than Calvin's view. But their view of calling except this point was all the same as that of Luther and Calvin.

Max Weber claimed that Calvinism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spirit of capitalism through its view of calling and predestination. The puritans worked very hard for the glory of God because they convinced their election. And they interpreted the wealth as the recompense for their work and accumulated the capital as the result of ascetic ethic. Bu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internal relation between the predestination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on the theological foundation. Though Calvinism and capitalism was spontaneously extended though Europe, it seemed correct that both's connection was largely accidental. But Calvin's contribution to develop capitalism may be regarded as functioning at two levels: at one, disincentives (such as the social and religious opprobrium with which the generation of capital was invested in the medieval period) were removed: at the other, positive incentives encouraged the fostering of attitudes and practices favorable to the emergence of capitalism. Bourgeois values—thrift, diligence, perseverance, hard work and dedication—were all religiously sanctioned by Calvin's theory. Capitalism is, however, a spin-off, rather than the intended product, of his religious outlook.

----- 목 차 -----

서론

1. 루터의 소명사상
2. 칼빈의 소명사상

3. 청교도의 소명사상

4. 베버명제
5. 결론

서론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분야에 국한되어 일어났던 개혁운동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던 거대한 정신 혁명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서구를 근대적인 사회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던 중요한 동인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특별히 서구 근대 자본주의 사회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되는 그들의 소명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루터, 칼빈의 소명사상은 중세까지의 직업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칼빈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가 서구 자본주의 정신이 발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주장되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막스 베버는 이미 1904-5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밝혀 놓았다. 막스 베버가 이 명제를 발표한 이후 그의 명제에 대한 찬·반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있는 중이다. 본고에서는 루터와 칼빈, 그리고 그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의 소명사상의 내용을 연구하여, 그들의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보고, 지금까지 베버의 명제에 대한 논의과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 루터의 소명사상

서양 중세까지의 지배적인 사상은 성.속의 이원개념으로 성직에 종사하는 것은 거룩하고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속되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중세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세속적인 삶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명상과 기도예 전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요, 그러한 삶만이 세상속에서 사는 삶보다는 훨씬 더 거룩한 것이었다. 세상속에서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결과 거룩하지 못한, 즉 속된 삶을 사는 셈이었다. 이러한 사상은 헬라사상 속에서도 자리잡고 있어 정신은 고귀하고 육체는 더럽다고 보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선비는 학문만 해야하며 생산활동에는 종사하지 않으면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던 것과 같은 이원론적인 직업관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전개했던 루터는 자신의 새로운 신학사상에 입각하여 중세까지의 소명사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소명사상을 주장하였다. 루터는 1520년에 4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7월에 「새로운 언약 곧 거룩한 미사에 관한 논문」(Eyn Sermon von dem Newen Testament, das ist von der heylygne messe), 8월초에 「기독교 국가의 종교개혁에 대하여 독일 귀족에게 고함」(To the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concerning the Reform of the Christian Estate), 9월 말에 「교회의 바벨론 유수」(De Captivitate Babylonica Ecclesiae), 10월초에 「크리스찬의 자유」(Tractatus de liberatate Babyonica Ecclesiae)를 발표하였다. 그는 「새로운 언약

곧 거룩한 미사에 관한 논문」에서 이신칭의의 결과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스도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시므로 우리는 찬양, 기도, 제사로써 그를 감동시키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또한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릴 기회를 그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앞에서 영적인 사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참된 사제들인 것이다. 믿음만이 참된 사제적이다. 그렇기에 모든 기독교인 남자들은 남자 사제들이며, 모든 여자 기독교인들은 여자사제들이다. 그들이 젊었거나 늙었거나, 주인이거나 종이거나, 남종이거나 여종이거나, 학식이 있거나 무식한 자이거나 관계없이 말이다.¹⁾

루터는 이와같이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사제들이라고 주장한 후에 교회 개혁의 임무가 귀족들에게 있음을 밝히려고 쓴 논문이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다. 루터는 이 편지를 신성로마 황제인 찰스 5세와 독일 귀족들을 대상으로 써서 교회의 개혁의 심각한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그들이 교회의 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²⁾ 루터가 세속적 권력 담당자들에게 교회의 개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근거는 그들도 성직자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영적인 권세가 세속적인 권세보다 높다고 주장하면서 세속권력을 억누르려고 하나 루터는 만인사제적의 이론으로 반박하였다. “세속적 권력이 기독교적인 몸의 구성원이 되었으므로 그것의 일이 육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신분이다. 그러므로 세속권력의 활동은 범인이 교황, 주교, 혹은 사제이든 관계없이 범죄가 발생하고 필요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방해를 받지 않고 몸의 전체 구성원에게 처벌하고 힘을 행사하도록 확대된다”³⁾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신분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도록 주어진 일과 직임을 제외하고는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모든 사람은 공공복리(commonwealth)를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며, 만약에 그가 그것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가 교황, 주교, 사제, 수도승, 재단사, 석공, 혹은 구두장이 이든지간에 억압받고 처벌받을 수 있다.⁴⁾ 루터는 그의 이러한 사상을 「교회의 바벨론 포수」와 「크리스찬의 자유」에서 계속 발전시켰다. 그는 모든 사

1. 지원용편, 「루터선집」7권(컨콜디아사, 1986), pp. 108-111.

2. James Atkinson, ed., *Luther's Works* Vol.44(Philadelphia:Fortress, 1966), p.124.

3. Ibid., p.133.

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이 동등한 영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그러므로 그들은 직임은 다르지만 믿음에 기초한 기독교인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부패하여 개혁의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세속에 대한 성직의 우위권을 무너뜨려 중세의 성. 속 이원개념을 타파하였다.

루터는 다시 1521년에 “수도원의 맹세에 대하여”(De Votis Monasticis)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수도원생활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반대하면서 가족과 세상과 격리되어 고독하게 살려는 삶을 악한 것이라 보았다. 루터는 이 논문에서 두 종류의 도덕성, 즉 청빈, 순결, 그리고 순종에 대한 맹세를 하고 세상을 떠나서 종교적인 생활로 물러나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더 높고 영적인 형태와 수도원 밖의 생활속에서 표현되는 낮고 세속적인 형태가 있다는 교훈과 대중적인 믿음을 반박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기독교적인 봉사와 순종은 수도원안에만 살아져서도 안되고, 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세상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살아져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루터는 수도원의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수도승들이 맹세하는 그러한 일들은 수도원적인 생활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참된 기독교인적인 순종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를 이웃과 결합시킨다. 참된 가난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웃의 복지를 위하여 해야만 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다.⁵⁾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사람이 격리되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속에서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루터가 이 논문에서 논의한 모든 것은 수도원 질서가 하나의 그릇된 위치(stand)라는 것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후부터 루터의 소명사상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소명을 의미하는 라틴어 *vocatio*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복음의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부름받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는 각자가 농부로서, 장인으로서, 또한 그와같은 직업인으로 부름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주로 두번째 의미로의 소명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소명을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한 성서귀절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이다. 이 성경귀절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기록하고 있다. 루터는 이 귀절의 부르심을 사람의 외적

4. Thomas M. Lindsay, *Luther and the German Reformation*(Edinburgh:T. & T. Clark, 1908), p.103

5. op. cit., pp. 251 – 272.

인 신분이나 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부르심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부르는 것이 아닌 세속적인 직업으로 부르는 것으로 본 것은 루터의 독특한 사상이다. 물론 루터가 라틴어 *vocatio*나 독일어 *Beruf*를 사용하여 표명한 소명개념 속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라는 개념을 내포하면서 특별한 직업으로 부름받았다가 개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위치(*stand*)와 직책(*office*)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고전 7장 20절에 대한 설교에서 소명을 가지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그의 대답은 우리가 하나의 위치(*stand*)를 차지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되며 아들이나 딸이 되고 소년이나 소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외부적인 관계에 개입되는 책임의 위대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두드러진 본보기로서 정숙하고 온건한 젊은이가 되는 것이 아들이나 딸로서 자기의 소명에 속하는 것이다.⁶⁾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지으면서 루터는 계속해서 군주나 감독이나 고위 성직자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는 감독이나 고위성직자가 종으로서의 소명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강도질이나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이나 창녀노릇을 하는 것 같고 같은 죄많은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과 같은 질서나 자기 실존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지 않는 것들은 남편과 아내, 소년과 소녀, 영주와 귀부인, 지사, 공직자, 농부, 시민등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죄많은 위치를 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소명은 그 말을 더듬어 본다면 속성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위치(*station*)이다. 루터가 말하는 소명이 하나의 직업에 한정되지 않고 베트게란 학자가 말했듯이 생물학적 질서라고 부르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포함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⁷⁾ 루터에게서 기독교인의 인격적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의 영역과 좀 더 비인격적인 소명의 지배가 강한 공직(*office*)의 영역을 분화시키려는 노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와 관계인 가정생활은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관계인 노동영역에 있어서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소명이다. 행동이 개입된 어떤것, 즉 세계나 이웃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어떤 것에 있어서 루터의 주장에 따르면 소명을 떠나 사사로운 영역에 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 지상에서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과의 메인 가운데 서있는, 다시 말해 관계가운데 서 있다.

6. Gustaf Vingren, 「루터의 소명론」 맹용길역, (서울:컨콜디아사, 1975), p. 13.

7. op. cit., p.15.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가지 소명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자녀의 아버지이고, 아내의 남편이며, 시청에서는 공직자의 소명을 가진다.

이러한 다양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루터는 “모든 위치(station)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⁸⁾ 그와같은 모든 위치에서 하는 노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봉사하는 데 일치하는가 하는 본보기로서 루터는 자기 가족을 돕기 위하여 일하는 아버지와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소명을 통하여 상호봉사함으로써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루터는 소명이 요구하는 당위성과 실천사이에 나타나는 괴리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루터는 이러한 괴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인간의 자아중심성 사이의 충돌로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의욕한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서로에게 봉사하고 자녀를 위하여 봉사할 때 이것은 마음의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보다는 제도로서의 결혼을 세우시고 그 위치에서 자기의 직책을 수행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은 이 땅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직책을 수행한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가 지속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어린이들이 음식을 받고 입을 것을 받고 돌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의 일을 ‘질서들’-결혼의 질서, 사제의 질서, 정부의 질서등등-을 통하여 지상에서 효력을 내게 한다.⁹⁾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소명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시는 셈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된다. 실질적으로 농부들이나 어부들이나 창조된 것들을 다루는 모든 질서의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이 반드시 봉사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이웃에게 은총을 전달한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작용하고 계신다. 하나님, 그리스도, 동정녀,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가 일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직업에 따라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님께서는 손발이 없다. 그는 인간의 도구를 통해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 그 일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젓짜는 소녀와 인분을 퍼나르는 청소부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8. Ibid., p.15.

9. Ibid., p. 19.

카르투스아 수도사의 시편노래보다 더 반기신다. 루터는 이런 저런 이유로 얽잡아 보던 직업을 꿇질기게 변호했다. ¹⁰⁾ 하나님이 창조사역 가운데 역사하심과 이러한 직책가운데 역사하심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소명을 통하여 소의 젖을 짤 것이다. 일의 낮은 데 종사하는 자든, 그가 소년이든, 왕이든 하나님을 일할 하고 있다. 자기의 직책을 적당하게 처리하는 하는 사람은 단순히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책의 일이 항상 이웃의 복지에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자기의 직책을 돌보는 것을 통하여 지상에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돌보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¹¹⁾

루터는 그의 소명론을 통하여 중세의 성·속개념을 무너뜨리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명은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왕이 하는 일이든, 농부가 하는 일이든 성직자가 하는 일이든, 젖짜는 소녀가 하는 일이든, 가정주부가 하는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수행함으로써 관계속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셈이다.

루터는 자신의 신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새로운 소명 개념을 주장했으면서도 그의 이러한 개념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기 보다는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도록 하는 중세시대의 유기체적인 사회이론에 입각해 있다. 또한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보면서도 당시 독일 사회가 압도적으로 농업사회이었기 때문이겠지만, 그는 상·공업보다는 농업을 훨씬 중시하였다. 그는 상인들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100길터를 소유한 사람이 1년안에 20길터를 이윤으로 남길 수 있으며, 1길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1길터를 벌어들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것도 인간의 기지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에 의존하여 부를 증진시키는 농업이나 가축사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는 우리가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을 축소시킨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실 것이며, 성경에 따라 토양을 경작하고 생계비를 벌어들이는 자들

10. Roland H. Bainton, 「마틴 루터의 생애」 이종태역, (생명의 말씀사:1982), pp. 250-251.

11. Vingren, po. cit., p. 20.

이 훨씬 더 훌륭하게 일하는 것이라 본다.¹²⁾ 루터는 이러한 이해에 입각하여 상업 활동의 비중을 낮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였다. 그는 “돈이 돈을 낳지 못한다(Nummus non paret nummum)”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 중세적인 원칙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것은 고리대금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당시 새롭게 발전하고 있던 상공업의 동향과 그에 따른 자본의 새로운 기능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직은 중세적이고 농업중심적인 사회관에 머물고 있었다.¹³⁾

2. 칼빈의 소명론

칼빈도 루터와 같이 우리의 “위치(station)”는 우연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지정된 것이라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위치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이다. 그와같이 하는 사람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의 올바른 위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다른 부분과 조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하에 있으므로 어떤 사람도 그의 소명속에 있는 어떤 것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은 없다.¹⁴⁾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명을 예정론과 연결시켰다. 칼빈은 그의 위치가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없이 그 자신의 뜻대로 산다면 그는 방황하면서 그의 삶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신실한 사람들은 세상의 창조전에 영원한 선택에 의하여 영적인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 거룩함을 위하여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성향을 따른다. 칼빈은 세속적인 직업과 관련된 소명에 대한 그의 견해를 기독교 강요 3권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들중의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속의 모든 행동에서 자신의 소명을 고려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이 기억되어야 한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불안에 사로잡혀서 아주 경솔하게 이리저리 서두르며 동시에 다른 여러가지 일들을 불

12. Hugh T. Kerr. ed., *A Compend of Luther's Theology*(Philadelphia:The Wesminster press, 1966), p. 186.

13. *Works of Martin Luther* (The Philadelphia edition), vol. IV. (Michigan, Grand Rapids:Baker Book House, 1982), pp. 10-35.

14. Forrester R. W., *Christian Vocation Studies in Faith and Work* (London:Lutterworth Press, 1951). p.148.

잡으려는 야심으로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만용때문에 야기되는 광범위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분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 모두에게 그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해주셨다. 어떤 사람이 성급하게 정해진 한계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분은 삶의 그러한 영역을 소명이라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그가 삶을 통하여 부주의하게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일종의 파수꾼의 자리로 그에게 할당한 그 자신의 삶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¹⁵⁾

결국 소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그 분의 선택의 결과이며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할당된 것이다. 칼빈은 로마서 주석(1539)과 고린도전서 주석(1546)에서 아주 명백하게 분배적 정의와 일곱개의 은사의 교리개념을 채택하였다. 칼빈은 성령에 의해서 분배되는 은사의 다양성과 구별을 우리 신자들의 각자가 그의 소명속에서 그에게 할당된 위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의 다양한 통일과 일치에 관련시켰다. 로마서 12장 4절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각자의 기능에 따라 교회의 유익에 공헌한다고 인식했듯이 신자들의 상호 의존적인 소명들을 사람 몸의 통일된 기능에 견주었다. 칼빈이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성격, 능력과 소명에 적합한 것을 고려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직업선택을 허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할당된 직책에 수반되는 의무를 숙고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탐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소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능의 차이는 인간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그러한 방식으로 나누어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생겨난다. 칼빈은 아버지와 선생님이 분별한 개인적인 재능이나 성향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대로 그들의 소명에 적합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¹⁶⁾

주님은 하나님이 정해진 조화나 구별을 혼란시키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에 만족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신다. 칼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우리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소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지식과 분리될 수 없도록 결합되어 있다. 칼빈은 이와같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

15. John T. McNeill ed.,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Vol III, Ch 10.

16. Richard M. Douglas, "Talent and Vocation in Humanist and Protestant," in *Action and Conviction in Early Modern Europe: Essays in Memory of E. H. Hartis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pp. 293-294.

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칼빈의 소명관은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세상의 삶속에서 금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로날드 월라스는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생활원리를 절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생활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절제를 필요로 한다. 부가 주어졌을 때에라도 그것을 자기의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용속에서 절제하여 생활을 해야한다. 칼빈은 무절제한 생활의 모습으로 사치와 방탕을 비난하였다.¹⁷⁾ 그래서 칼빈이 개혁을 하였던 슈네브에서는 음주, 춤, 사치스런 의복등을 규제하면서 검소하게 살도록 입법화하였다.

그리고 칼빈의 경제사상속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깊게 나타나 있다. 그는 사적인 혹은 공적인 채널을 통하여 자비로운 재정적인 도움이 주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의 소멸을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칼빈의 정신은 부의 소유와 사용에서 대한 그의 교훈에서 자본주의 정신과 아주 다르다. 그는 부의 소유는 상호간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사회를 유기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중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¹⁸⁾

칼빈의 소명사상 가운데서 또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노동의 의미를 바꾸어 준 점이다. 성경에 보면 일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이 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인간이 일하는 것이 저주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본래 일을 하도록 의도하셨음을 보여준다. 인간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인 셈이다. 그러므로 일한다는 것은 축복이요 즐거움이지 결코 저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저주가 임하였다. 그결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다. 인간은 범죄의 결과로 노동 자체가 고역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가능하면 노동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노동의 원래의 의미가 회복되어 저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노동의

17. Roland S.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 나용하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pp. 222-223.

18.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8), pp. 92-93.



개념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다. 칼빈은 노동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을 가르쳤다. 칼빈은 “세속적인 일을 떠나 관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천사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우리는 사람이 일하는데 분주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과 각자가 그에 소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공선을 위하여 훌륭하게 살려고 연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희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¹⁹⁾ 그러므로 일하는 것 자체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칼빈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축복이 반드시 그 노동의 댓가로 오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번영과 성공은 오직 하나님에 의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를 획득하려고 서두르면서 헛되이 수고로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한다.”²⁰⁾ “우리는 헛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상”이라는 단어를 만나거나 우리 마음에 스쳐갈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자.”²¹⁾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도록 만드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공공선을 도모하여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소명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칼빈의 소명관에서 루터와 구별되는 점은 그가 활동하던 쥘네브의 경제적인 상황때문에 그가 상업활동을 인정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한 점일 것이다. 칼빈의 활동하던 쥘네브는 독일에 비하며 조그만 도시로서 경제생활을 주변도시 지역과의 교역활동에 의존하고 있었다. 쥘네브는 유럽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잇점때문에 15세기 전반기에는 국제적인 시장이 열리면서 번성하였으나, 15세기 후반에는 프랑스가 리옹지역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였고 그 외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쥘네브의 경제는 후퇴하였다.²²⁾ 16세기에 접어들어 사보이로부터의 독립운동과 종교개혁운동이 겹쳐서 제네

19. John Calvin, Commentary on Luke 10:38. 여기에 사용된 칼빈의 주석은 *Calvin's Commentaries Vols 45*, ed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Michigan, Grand Rapids, 1974)를 사용하였다. 앞으로 *Commentary*로 약함.

20. *Commentary* on Psalm 127:2.

21. *Commentary* on Luke 17:17.

바는 곡물공급의 위기를 겪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스위스의 개신교 재정동맹의 도움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탈출하였고 칼빈이 활동하던 1550-1570년경에는 상당히 호전되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발전은 칼빈이 주도했다기보다는 그가 개혁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칼빈은 이 상황에 제동을 걸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볼 수 있겠다.²³⁾ 그는 전통적으로 나쁘게 평가되던 상업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경건한 자의 생활은 정확히 상업과 비교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교환하고 교제하기 때문이다.”²⁴⁾ 그는 이와같이 상업을 통하여 인간이 상호 필요한 것을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인간이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인간 사회는 와해되고 만다”고 보았다.²⁵⁾ 칼빈은 상업안에도 인간의 부패성때문에 매점매석, 가격조작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러한 것들을 규제하면서 상업이 지닌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하였다. 그것은 그가 활동하던 슈네브의 경제적인 기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는 루터와는 달리 초대교회때부터 항상 금기시되어 왔던 고리대금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였다. 물론 그도 다른 신학자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하였으나 사업을 하여 이윤을 남기는 경우에 이자는 받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돈을 돈을 낳지 못한다”는 입장을 넘어서서 자본을 투자하여 이윤이 남을 경우 대부자도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었다.²⁶⁾ 그는 그 이자율은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3. 청교도들의 소명의식

칼빈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은 칼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직

22. Willian C.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Pennsylvania:Pickwick Publications, 1983), pp. 171-173.

23. Alister E.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Massachusetts, Cambridge:Basil Blackwell, 1990), pp. 228-234.

24. *Commentary* on Mt. 25:20.

25. *Commentary* on Isaiah 23:17.

26. Andre Bieler, *La fense E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Geneva:Georg, 1959), pp. 458-459.

업윤리를 더욱 발전시켰던 것이다. Richard M. Douglas는 청교도의 소명의식에서 칼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허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재능의 적합성으로 돌린 점과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신장시킬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을 들고 있다.

칼빈은 아직까지 모든 소명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으로 보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거론하지 않고 있으나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청교도였던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는 1602년에 쓴 「소명론」(*A Treatise of the Vocations*)에서 그 점을 언급하고 있다. 퍼킨스도 앞의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모든 소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점과 특별한 소명의 목적은 공공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퍼킨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수행할 합법적이고 정직한 직업을 선택해야만 하며 감당하기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재능과 성향을 검토해야만 한다. 더구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부모들은 어떤 직업이 자녀들에게 적합한가를 좀 더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관찰해야만 한다. 첫째로 그들의 성향과 둘째로 그들의 재능이다. 퍼킨스는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의 능력의 소명속에서 가장 훌륭하며 그것이 신의 의도라고 생각하였다. 소명은 어떤 의미에서 부과된 것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리처드 박스터(Richard Baxter)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는 소명의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너는 선택할 수 있는 한 네가 하나님께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

「기독교 교본」(*The Christian Directory*) 10장에서 박스터는 “우리 소명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노동”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네가 어떤 소명과 노동이 가장 바람직스운가를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너와 너의 자녀가 몸과 마음에서 어떤 것에 가장 적합한가를 고려해야만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나 부모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재능도 고려해야만 한다. 관리들, 목사들, 그리고 교사들은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그들의 자연적인 성향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의 결정에서 젊은이들을 돕고 조언해야만 한다.²⁷⁾

이와같은 점에서 청교도들의 소명의식이 칼빈의 입장에서 좀 더 진전된 것은 인정되나, 청교도들의 소명사상도 기본적으로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소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소명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보았으므로 자본주의 정신의 발생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과 베버의 이론에 따라 청교도들은 칼빈의 예정론의 증거를 현실의 성공여부에서 구하여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금욕주의적인 윤리의식을 가져 자본주의 정신을 발전시켰다는 두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전자의 입장은 베버이후 상당히 많은 학자들의 인정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그러한 주장에 대한 반대이론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청교도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이어받았다는 입장을 주장하는 라이켄(Leland Ryken)의 입장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는 태도의 중요성은 일을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청교도들의 선택과 섭리에 대한 강조는 모든 사람들이 일과 관련하여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용이하게 만들었다. 리차드 스틸(Richard Steele)은 쓰기를 “하나님이 모든 남녀를—그들 자신의 이익과 공공 선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일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셨다.—세상의 위대한 통치자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적절한 위치와 영역으로 지정하셨다.”²⁷⁾

청교도들이 이러한 소명관의 효과의 하나는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청지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무슨 직업에서 일을 하든지간에 그들은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리차드 스틸은 다음과 같이 썼을 때 일을 청지기 역할로 보았다. “너에게 달란트를 빌려주신 분이 ‘내가 올때까지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어떻게 하루 종일 게으르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너의 직업은 너의 영역이다.” 청교도들의 견해에서 보면 자신의 소명속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일하는 것이다. 존 코튼(John Cotton)은 “그러므로 사람에게 봉사하는 속에서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손에 하늘의 일을 잡고 있드시 신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했다.

청교도들이 소명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이해한 것은 자신들의 소명을 만족함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이끌었다. 존 코튼은 말하기를 “기독교인은 그의 직업을 만

27. Douglas, op. cit., pp. 295–297.

28. Leland Ryken, *Worldly Saints: The Puritan as they Really Were* (Michigan, Grand Rapids: Academic Books, 1986), p. 26.

족해 하면서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는 그들이 만족과 흡족함을 가지고 그들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청교도들은 소명에 대한 충성을 믿었다. 소명은 쉽게 들어가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직업을 선택할 때에 자신의 재능과 성향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하여 선택할 것과 한 번 선택하고 난 뒤에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권면하였다. 청교도들은 직업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그들은 다른 직업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 그러한 전환을 시도하지 말 것을 권면하였다.²⁹⁾

라이켄은 청교도들도 칼빈과 같이 부와 성공을 자기 스스로 얻은 것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의 표시로 보았으며 청교도들은 오히려 과중한 노동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중용의 입장을 취했다고 보았다. 그는 청교도들의 노동 윤리가 원래의 입장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적인 입장으로 기울어진 것은 그 본래의 정신이 퇴색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로버트슨이 취했던 입장이다. 로버트슨은 “‘소명’의 교리는 자본주의 정신을 부화하고 있지 않았다. 자본주의 정신은 청교도 교리의 점진적인 수정과 쇠퇴에서 생겨났다. 그리고 이러한 쇠퇴는 왕정복고이전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라이켄의 입장은 청교도들의 입장이 칼빈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청교도들의 사상에서 자본주의정신이 나왔다는 주장은 청교도사상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4. 베버 명제

이 장에서는 베버 명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의 명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보자. 베버가 주장한 것은 자본주의가 칼빈주의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근대적 자본주의정신이 칼빈주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자본주의 정신이 종교적인 요인 하나에서 나왔다는 단순 논리를 펴고자 했던 것은 아니며 종교적인 요인이 합리적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가는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혀보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그는 중세적인 자본주의와 근대적인 자본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세적인 자본주의는 모험 자본주의로 기회주의적이고 신중하지 못하여 부를 획득하였을 때, 호화로운 생활을 하여 부를 소비하였다. 그러나 근대적 자본주의는 강한 윤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리적이다. 이것은 부를 획득하였을 때 쾌락주의를 피하고 금욕주

29. Ibid., 24-28.

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발생했을까?

베버는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종교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중세에도 푸거가, 메디치가 등에게 은행업이 허용되었지만, 그들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베버는 그들의 자본 축적과 그들의 영혼 구원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금욕적인 칼빈주의의 발흥과 함께 부의 축적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나타났다. 베버는 이러한 태도가 자본의 낭비를 비난하면서 세상에서의 직업을 통하여 부의 축적을 장려했던 벤자민 프랭크린같은 17-18세기 칼빈주의 작가들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고 보았다.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있는데, 그 예정의 표시를 이 세상에서 성공의 여부에서 구하려 했고, 그 결과 부를 획득해도 쓰지 않고 축적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정신은 칼빈주의의 예정론과 연결된 소명사상속에서 발생한 셈이었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대하여 반대한 사람들은 좀바르트(Berner Sombart), 토니(R. H. Tawney), 허드슨(Hindrop S. Hudson), 로버트슨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로버트 그린의 잘 정리하여 놓았다.³⁰⁾ 베르너 좀바르트는 칼빈주의가 전통적인 스콜라적인 공정거래 원리에 집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을 극도로 배척하는 등의 반자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본주의적인 영리활동에 대하여 뚜렷하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였다.³¹⁾ 토니는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는 베버의 명제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칼빈주의가 유일한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다. 토니는 자본주의 혁명은 여러가지 요소들이 결합한 결과로 일어난 것으로 그 요소들은 상당히 많은 수에 달하기 때문에 간결한 공식으로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주의의 관념이 초기에 자본주의 정신의 형성에 이바지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은 지속된 것이 아니고 종교적 권위의 퇴조와 함께 종교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경제욕구가 보편화될 수 있었던 점에서 자본주의의 발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³²⁾

한편 허드슨은 베버가 칼빈주의의 경제적 의의를 설명하면서 지나치게 단순화시

30. Robert W. Green, *Protestantism and Capitalism—The Weber Thesis and Its Critics*(D.C. Heath and Company, 1959). 이 책은 이 동역역「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베버 명제와 그 비판」(서울:종로서적, 1987)으로 출판되었다.

31. *Ibid.*, pp. 65-82.

32. *Ibid.*, 83-112.

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허드슨에 의하면 베버는 인과관계의 상호적 관계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지나친 단순화에 빠지게 되었다. 베버는 17세기의 청교도주의와 16세기의 칼빈주의를 동일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베버는 그의 입장을 논증하기 위하여 주로 17세기 청교도들의 저작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입장은 영국의 엄청난 경제적 변혁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16세기 칼빈주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³³⁾

베버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비판은 로버트슨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로버트슨에 의하면 베버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17세기 문헌들을 동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헌 자료를 기초로 칼빈주의 교리가 바로 자본주의 정신을 낳았다고 단정하는 주장은 역사적인 방법론을 몰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로버트슨에 의하면 부르조아의 도덕률이 종교를 대신하여 확산되어 간 것은 칼빈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적 발전 그 자체의 결과로서 부르조아 계급의 역사적 부상에서 따른 것이었다. 즉 종교적 관념의 변화가 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에 교회가 스스로 적응, 동화해 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종교적 관념의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본다.³⁴⁾ 이들은 베버가 칼빈주의와 자본주의 정신 사이의 일의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베버는 양자간의 일의적 인과관계를 설정하려 했다가 보기보다는 오직 프로테스탄트들의 금욕적인 합리주의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 정신 형성발전에 영향을 준 점을 추적하려고 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베버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념형을 설정하고 그 이념형에 따라 한 요소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의 설명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비판자들은 베버가 칼빈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사이에 있는 인과관계를 설정한 것이 역사적인 경제 발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그러면 신학적인 입장에서 베버의 입장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베버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의 작품, 더 나아가서는 18세기의 벤자민 프랭클린의 저술까지 인용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추적하면서, 금욕적인 자본주의가 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예정론을 거론하였다. 베버의 입장이 타

33. Ibid., pp. 113-114.

34. Ibid., pp. 129-169.

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예정론과 금욕적인 합리주의 사이에 내재적인 상관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예정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17-18세기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의 구원이 예정에 근거하여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자신의 구원의 증거를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서 찾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결과 자본주의 정신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17세기 중엽 자본주의와 칼빈주의는 함께 확장되어 나갔고 이것이 사회이론가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버의 명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베버 명제에서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의 친연성(affinity)이 결과로서가 아니라 전제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친연성은 증명되기 보다는 설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17세기 초반에 칼빈주의자들이 경제적 엘리트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신학적인 입장에서 칼빈주의적인 영성과 베버가 검출해 내는 ‘자본주의 정신’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다루는 방대한 저술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중대한 비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저자들이 어떤 종교적 교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회이론가 내지는 경제사가들이라는 점이다. 베버 자신이 ‘자본주의 정신’으로부터 칼빈주의의 ‘소명’교리로 접근해 갔다. 양자 사이의 연관은 빈번하게 주장되었으나 이론적인 수준에서 정당화된 적은 없다. 허버트 뢰티(Herbert Lüthy)는 중세 후기와 종교개혁 초기의 신학적인 구도로부터 특별하게 칼빈주의적인 사상을 분리시키면서 칼빈주의의 예정론 개념을 성공의 길로 정신분석하는 조잡한 시도속으로 곧바로 빠져드는 역사가들의 방법론에 대하여 비판했다.³⁵⁾

칼빈의 이중 예정론 교리는 14세기 어거스틴 사상의 부흥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신학적 발견물이 아니다. 베버가 상당히 해석적인 무게를 두었던 “노동 윤리”의 발생은 목회적이고 신학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종교개혁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확립시켰다. 그런데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 변형적인 차원, 즉 새롭게 선행을 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선행은 신자들 안에 있는 은혜의 임재와 활동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시로 보여진다. 칼빈도 은혜

35. Herbert Lüthy, "Variations on a theme by Max Webber." in M. Powich ed., *International Calvinism 1541-1715*(Oxford, 1985), pp. 377.

의 선물적인 성격을 주장하면서 이 은혜는 선택된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누가 선택된 자인가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베버는 칼빈이 그러한 문제들을 문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칼빈은 불신앙과의 싸움이 기독교 생활의 영속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³⁶⁾ 칼빈은 그러한 의심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영적인 수단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지고 토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는 것—을 제시했지만, 그 역시 좀 더 실제적인 고려들 즉 선행에 호소했다. 칼빈은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확신의 근거로서 이해되는 것을 허용했다. 선행들은 ‘우리안에 거주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증거들’로서 간주될 수 있다.³⁷⁾ 신자들은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증거된다. 이와같이 선행을 구원의 표시로 간주하는 경향은 목회적인 강조점을 가지면서 노동 윤리를 명료화해 나가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신자들이 선민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세속적인 활동주의를 통해서였다.

선택의 문제에 대한 불안은 그 이후에 칼빈주의의 영성의 지속적인 문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취급되었으나 그들의 대답은 거의 동일하였다. 그들은 선행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념은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 계약신학이 도입되면서 더 강화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도덕적인 행동들을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신자들이 구원을 확신하도록 계약을 맺으셨다. 이러한 행동들을 수행하자마자 신자들은 그들이 선민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인식할 수 있다. 초기 칼빈주의 도덕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행동주의에 대한 경향은 이와같이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위에 놓여지게 되었다. 세속적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자들은 그들의 소명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들의 선택에 대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³⁸⁾ ‘소명’의 개념은 이러한 견지에서 생각될 수도 있다. 선행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필연적으로 특별한 세속적인 직업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크게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선성한 소명을 입증할 필요와 관련되어 있다.

17세기 중반에 이르면 주류 교회들—로마 카톨릭, 루터란, 칼빈주의—은 모두가

36. *Institute* III. II. 17–18.

37. *Institute* III.xiv. 19.

도덕적 열성, 헌신, 그리고 양심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이 시점에서 칼빈주의를 다른 것과 구별시켜 준 점은 그들의 도덕적 열성이 아니라 그것이 봉사한다고 이해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기능이였다.³⁹⁾ 소명의 기능은 칼빈주의에 특징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은 예정론 교리에 의해서 발생된 불안과 연결되어 있었다. 틀림없이 이것은 세속적인 활동주의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다. 16세기에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그들은 세상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반에 이르면 칼빈주의의 이러한 특성은 상당한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 시기에는 알미니안주의, 메노나이트, 독립파, 웨이커교도들도 예정론에 대한 특별한 신학적인 구조가 없이도 세속적인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 16세기와 17세기 초반에 칼빈주의에 특징적이었던 것이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북유럽 부르조아지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다.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칼빈주의의 이러한 특성이 침식되면서 세속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베버가 가장 중시하였던 종교적인 열정은 이 시기에 이르면 거의 칼빈주의적인 특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물론 17세기 후반의 노동과 세속적 활동주의에 대한 태도는 신적 선택의 문제에 대한 이전시기의 불안의 잔존물이라고 설득력있게 주장될 수 있다.

베버 명제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이것이 한 편에서의 노동 윤리와 다른 한 편에서의 자본축적 사이에 특별한 연결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칼빈과 청교도들은 부를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칼빈은 부의 사용에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도 강조하였으며 청교도들도 그러한 점에 상당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베버가 본 바와 같이 노동윤리와 부의 축적사이에는 어떤 내재적인 특별한 연결점이 없다. 물론 여기에는 베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금욕주의가 작용하고 있다.

칼빈주의가 자신의 선택에 집착하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적절하게 세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취할 수 있는 활동의 특별한 형태는 개방되어 있었다. 역사적인 분석은 이러한 형태들이 시대에 따라 변하였던 역사적 우연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1603년에서 1640

38. John Dillenberger and Claude Welch, *Protestant Christianity Interpreted Through Its Developm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4), p.102.

39. McGrath, op. cit., p. 242.

년까지는 정치적인 문제들에 정열을 쏟았으나, 크롬웰이 통치가 끝난 후 왕정복고가 이루어져 정치적인 활동의 영역이 막히게 되자 다른 부분으로 활동의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 시기가 그들의 경제적 활동의 활발해지는 시기였고, 베버가 주로 근거 자료로 인용한 것이 이 시기에 활동했던 리차드 빅스터와 존 변연의 자료였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베버가 단지 역사적인 우연위에 근본적인 이론적 건축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⁴⁰⁾ 그러므로 베버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칼빈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사이의 내재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점은 밝혀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양자의 관계는 두 사상이 동시에 존재하였으나 베버가 설정하듯이 인과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우연적인 결합을 했다고 보면서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

5. 결론

종교개혁자들의 활동을 통하여 중세와는 다른 개념의 소명 개념이 확립되었다. 루터는 중세의 성·속 이원개념을 무너뜨리면서 만인사제적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앞에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직임이 다를 뿐임을 밝혀 주었다. 그러므로 성직자와 농부와 가정주부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세속적인 활동에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였다. 루터는 이러한 직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개념을 정립시키면서 근대적인 직업관을 내세웠으나 아직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새로운 경제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낮게 평가하였으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도 부정하였다.

칼빈도 근본적으로 루터와 동일한 소명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소명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여 각자가 주어진 직업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이 활동하던 제네바의 특성때문이었지만 상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였고 생산활동을 하여 이윤을 남기는 경우에 빌린 돈에 대하여 이자를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상업활동의 발전을 촉진시킨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경쟁원리를 도입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를 노동의 댓가로 보다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으로 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에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40. Ibid., p. 244.

청교도들은 자신의 재능을 고려한 직업선택을 인정하고 공공의 선의 추구와 함께 개인의 선을 추구를 인정한 점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칼빈의 소명이해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 교리도 그들이 이 땅에서 선택받은 것에 대한 불안에서 세속적인 활동주의의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경제적인 활동에 집중되었다고만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선택을 확신하고 신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했다기 보다는 선택을 확신하는 증거로서 추구했던 면이 강하다. 이들이 신학적인 근거에서 성실하게 일하도록 권면한 점에서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칼빈이나 청교도들이 이것을 자신을 위하여 축적하도록 권장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공공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강조한 면이 강하다. 그러므로 로버트슨이나 토니나 주장하듯이 그러한 칼빈주의의 근본윤리가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해이해졌을 때 부의 축적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을까? 종교개혁자들의 활동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내재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측면에서 그것의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고 도움을 준 면도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진다. 종교적인 활동이외에 세속적인 활동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소명사상의 확립을 통하여 새로운 노동관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의 세상을 긍정하는 신학과 자본주의 사이의 연결은 불가피했던 것 같다. 양자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밝혀지든지간에 서구 문화에 대한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주의적인 유산중의 하나는 노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 특별히 육체 노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이다. 노동은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를 획득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 짜증나는 것이기는 커녕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모든 인간적인 활동중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받았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영역에서 비판적으로 종사할 것을 요구한다. “개신교의 노동윤리”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노동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과 그것들이 무엇이든지간에 근면하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노동은 이와같이 심원하게 영적인 활동, 즉 기도의 생산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형태로 평가된다. 육적이고 영적인 활동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능들이 수행되고 구원의 개인적인 확신이 획득될 수 있는 이 하나의 활동에서 결합된다. 참으로 이러한 새로운 태도가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참 고 도 서

- Atkinson, James.ed. *Luther's Works* Vol 44. Philadelphia:Fortress, 1966.
- Bainton, Roland 「H.마틴 루터의 생애」. 이종태역. 생명의 말씀사. 1982.
- Bieler, Andre. *La Pense E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Geneva : Georg, 1959. .
- Dillenberger, John and Welch, Claude. *Protestant Christianity Interpreted Through Its Development*. New York:Charles Scribner's Sons, 1954.
- Douglas, Richard M. Talent and Vocation in Humanist and Protestant thought.” *Action and Conviction in Early Modern Europe:Essays in Memory of E. H.Habis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Forrester W. R. *Christian Vocations Studies in Faith and Work*. London:Lutter Worth Press. 1951.
- Green, Robert W.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이동하역. 서울:종로서적, 1987.
- Herbert Lüthy, “Variations on a theme by Max Weber,”in M. Powich ed. *International Calvinism 1541—1715*. Oxford, 1985.
- Jacobs, Charles M. ed. *Works of Martin Luther*(The Philadelphia edition), Vol IV. Grand Rapids:Baker Bookhouse, 1982.
- Innes, William C.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Pennsylvania:Pickwick Publications, 1983. .
- John Calvin. McNeill, John T. ed.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Kerr, Hugh T. ed. *A Compend of the Luther's Theology*. Philadelphia:The Westminster Press, 1966.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Lindsay, Thomas M. *Luther and The Reformation*. Edinburgh: T. & T. Clark, 1608.
- McGrath, Alister E. *A Life of John Calvin*. Massachusetts, Cambridge:Basil Blackwell, 1990.
- Ryken, Leland. *Worldly Saints:The Puritans As They Really Wer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s House, 1986.
- Vingren, Gustaf. 「루터의 소명론」. 맹용길역. 컨콜디아사, 1975.



Wallace, Roland S.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Michigan, Grand Rapids: Baker Bookhouse, 1988.

Wallace, Ronald S.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나용화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지원용편. 「루터 선집」 7권, 컨콜디아사, 1986.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